



▲ 5월의 녹음이 짙어진 예술관 앞 벤치의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강의로 학우들의 발길이 뜸해진 캠퍼스가 아쉽게 느껴지는 5월이기도 하다. (사진: 슈퍼스타칼리지 교양학부 말리교수)

2020-1학기 재학생 학업장려지원장학금 지급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난 5월 4일, 전주대가 '2020-1학기 재학생 학업장려지원 장학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코로나19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초까지로 연장되면서 한 달 넘게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됐다.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서 여러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때문에 전주대에서 재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수강을 지원하고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20-1학기 재학생 학업장려지원장학금'은 2020-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부 재학생, 2020학년도 신·편입학 학생, 교내·외 장학 전액 감면 학생, 기 등록(휴학 당시 수업료 납부) 해당 학기 등록금 면제 복학생, 정규 학기(8학기) 초과 학생이라도 학점 취득을 위

해 수강신청 및 등록금을 수납한 학생 모두에게 지급된다. 성적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단순 졸업유예자 또는 당해 학기 '논문' 신청으로 0원 등록한 학생과 졸업, 휴학(기 등록 휴학생 포함), 자퇴, 미등록 학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은 1인당 100,000원(수업료 범위 외 지급)으로, 재학생 포털(inSTAR)에 등록

된 학생들 개인 통장에 지급된다. 따라서 재학생 포털(inSTAR)에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5월 15일까지 지급계좌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장학금 지급은 5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개교 56주년 기념식 열려

지난 5월 4일 오전 11시, 개교 56주년을 맞아 대학본관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이 진행됐다.

기념식은 한병수 목사의 기도와 이호인 총장의 기념사로 시작됐다. 이어 연공상, 우수 교육자상, 슈퍼스타직원상, 특별공로상, 표창패, 감사패 순으로 시상이 진행됐다.

연공상은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교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윤찬영, 전준구, 박상업(30년), 안세길(20년), 홍성덕, 김병기, 김효진, 유강원, 홍성택, 전효진, 이옥인, 백광호, 예린, 유영렬, 김민호, 최성관, 차동훈, 이수진, 서정상(10년) 총 19명의 교직원이

수상했다.

우수교육자상은 대학 교육과정과 후학 양성에 기여한 교육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왕남, 김병기, 오희화, 이병순, 김홍건, 강인선, 정승은, 박보람, 김수인, 김형술, 말리 총 11명의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또, 연구업적이 우수한 교원에게 수여되는 우수연구자상은 변주승, 김동현, 김수인, 임애란, 박은영 총 5명의 교수에게 수상되었다.

다음으로 대학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슈퍼스타 직원으로 선정된 직원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슈퍼스타직원상으로는 문용

성, 이윤경, 김연정, 김현철, 노경민 총 5명의 직원이 수상했다.

이어, 전주대에서 40년 이상 근속하며 대학 발전에 이바지한 김래선, 이재운 교수에게는 특별공로상을 수여했다.

표창패는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석규, 장현희, 한정에 3명의 경비·미화원에게 전달됐다.

마지막으로 감사패는 김희경 동문에게 전달됐다. 김희경 동문은 전주대 한문교육학과 82학번으로, 세 명의 자녀를 모두 자신이 졸업한 전주대 한문교육과에 진학시켰다.

김희경 동문의 첫째 김여명(한문교육과 09

학번) 졸업생은 2014년 임용시험에 합격해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고은중학교에서 한문교사로 재직 중이며, 둘째 김소명(한문교육과 10학번) 졸업생은 2016년 임용시험에 합격해 전주시 서곡중학교 한문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2020년도 전국시도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막내 김고명(한문교육과 13학번) 졸업생이 합격하면서 세 자매가 모두 한문교사가 됐다.

이와 같이 한문 교육 확산에 이바지하고 대학의 위상을 드높인 김희경 동문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을 수여했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전주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선정

고급인력 창업활성화 위해 3년간 총 28억 원 지원 단계별 창업 지원 통합적인 체계 구축

'2020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에 전주대가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대학원 실험실이 보유한 연구성과와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기술혁신형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주대 창업지원단은 유망 실험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총 28억여 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식재산 고도화, 비즈니스 모델 검증, 투자 유치,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에 초

점을 맞추어 전주대만의 최적화된 창업지원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흥 창업지원단장은 "창업을 희망하는 연구자(교수, 대학원생 등)가 기술사업화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대학의 인·학사제도, R&DB 자금지원, 기술창업 전문인력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대외협력홍보실

편집: 김지은 편집장(jieun@jj.ac.kr)

코로나 방역 ... 학교와 학생들의 노력 지속돼야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진행중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에선 지속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학 중 학교를 오가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해가 될 수 있는 몇몇의 안일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교에는 총 6개의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근로 장학생이 감독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근로 장학생의 근무 태도이다. 학생회관의 경우 학생들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 출입문을 통제하고 1층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를 주시하면서 체온 측정을 해야 하는 근로 장학생이 핸드폰을 하거나 개인 공부 또는 수업을 듣는 등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 장학생 또한 학생 신분으로 실시간 강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로 장학은 개인 시간표에 맞춰 업무 조정이 가능하므로 적절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 학교에서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싼 비용을 지불하여 열화상 카메라를 샀지만 정작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이 아닌가.

또 학생들이 학교 건물 내에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출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단과대학별로 일부 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건물별 통제를 위해 체온 측정 후 확인 도장을 손목에 달인하고 있다. 맨살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우리의 작은 부주의함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어진다면 지역 사회,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 일일 확진자 수의 감소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순차적인 등교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확진자의 급증으로 또다시 등교가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도 종식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을 2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각자의 생활권 안에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쓰기 등 이제껏 우리가 지켜왔던 것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1학기 채플 '신입생들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

최근 신입생들 사이에서 채플 강의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내에서 온라인 채플 강의에 대해 "재밌다", "한 편의 예능 프로그램 보는 것 같았다", "등록금이 아깝지 않았다" 등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채플 강의 속에서 다양한 영상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색의 사용은 극적인 효과를 내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이해 능력의 변화를 줄 수 있다. 밝고 가벼운 색을 사용한 채플 강의는 즐거움과 친근함을 표하고 있어 학생들이 강의를 보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볼 수 있다. 소리 또한 적절히 사용해 강의를 주목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 시각적 자료인 사진과 영상을 강의 중간마다 첨부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채플 강의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초반

30분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교수님 세 분이서 매주 다른 종류의 카드를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 후반 30분은 매주 다른 주제로 본인 스토리에 대해 간단히 얘기한 후,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인물들의 예시들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강의를 들은 후 워크북을 작성함으로써 워크북의 미션수행일기, 3*3 법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렬이나, 성품을 다듬을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무심코 살아왔던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며 자신을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대면 강의를 진행되면 더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감이 더 커질것으로 기대된다.

김민하 신입기자(minha37@jj.ac.kr), 박지연 신입기자(jiyeon4260@jj.ac.kr), 장채원 신입기자(jcw2454370@jj.ac.kr)

아쉬운 문광대 보궐선거

지난 4월 23일(목) 09:00 ~ 18:00, 전주대학교 inSTAR에서 문화관광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관광대학 학생자치기구장 보궐 선거가 진행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호 1번의 PACE 본부와 기호 2번의 MOONLIGHT 본부에서 후보자가 나왔다.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16일(목)부터 시작해 4월 22일(수)로 총 7일간 가능했다.

선거 초창기에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유세,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게시물 공유 등의 다양한 SNS 유세가 가능했지만,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자, 페이

스북 페이지 '전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유세 글과 전주대학교 inSTAR 홈페이지의 글로만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나 공약을 알 수 있었다.

4월 17일 이후로 바뀐 한정된 유세 타인지, 투표율은 4월 23일 당일 12시 8.4%, 15시 19%, 17시 30.9%로 점차 올랐지만, 투표 종료 후 집계결과 유권자 수 1,277명 중 투표자 수 477명(전체의 37.35%)이라는 반절이 되지 않는 투표율이 나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선거였다.

임정훈 기자(yimjh6360@jj.ac.kr)

전주대신문 신입기자 모집

모집기간: 상시 모집

모집부문 취재기자(기사작성), 편집기자(카드뉴스 작성, 신문 디자인)

지원자격 전주대학교 재학생

지원절차 E-MAIL지원 jieun@jj.ac.kr
문의: 010-4796-5270

활동혜택 원고료 및 장학금 지급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도서관 이용안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시행되면서 해당기간 동안 도서관(열람실)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개인 방역 및 집단 방역에 대한 수칙이 새로이 확정되었고, 도서관의 자료실과 열람실 및 노트북존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료실과 열람실 및 노트북존 모두 좌석을 약 30%도만 이용 가능하고 출입관리대장

이 열체크와 입퇴실시간을 기록하고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고 있다. 자료실은 열람 및 대출도서를 책 소독기에 소독하고, 열람실 및 노트북존은 좌석예약 후 이용 가능하되 좌석이동은 금지되어 있다. 도서관의 모든 시설에 주기적인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실과 열람실 및 노트북존의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같지만, 자료실은 주중에만 열람실 및 노트북존

은 주말에도 이용 가능하다.

도서관 이용 방법은, 도서관 어플을 키고 모바일 열람증(학생증)을 눌러 출입구에 갖다 맨다. 열 체크와 출입시간을 적고, 좌석 현황에 들어가 열람실 좌석 배정을 누르고 원하는 자리를 잡고 사용하면 된다. 이후에는 나의 이용현황에서 연장 및 반납이 가능하다. 배정과 동시에 4시간 동안 좌석 사용이 가능하고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좌석 연

장을 누르면 된다. 퇴실 시에는 꼭 반납을 눌러줘야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다.

음료나 물은 뚜껑이 있어야 하고, 도서관 내에 음식은 반입 금지이다. 좌석은 꼭 배정하여 사용해야 하고, 적발될 경우 제한 시간 동안 도서관 출입이 금지된다.

이수용 기자(yong5135@jj.ac.kr)

우리는 학교의 주인: 생활 속에 거리두기

5월에 들어 우리나라 신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이내를 웃돌고 있다. 상황이 점차 진정됨에 따라 정부는 5월 6일 이후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한단계 완화된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제시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란 기존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일상생활 가운데 방역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전주대학교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5월 18일에 등교할 것을 공고했다.

5월 18일, 우리 학생들이 등교 후 코로나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진서하 기자(201915015@jj.ac.kr)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1. 통학버스와 시내버스

우리가 등하교 시 이용하는 학교 통학버스와 시내버스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학교 통학버스의 경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주 이용자이기 때문에 버스 내에서 학생들 간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시내버스는 우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전주시 주민 모두 사용하는 대중교통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좌석에 앉아서 갈 경우엔 최대한 자리를 넓게 앉고, 만약 차내가 혼잡하다면 다음 차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 강의실과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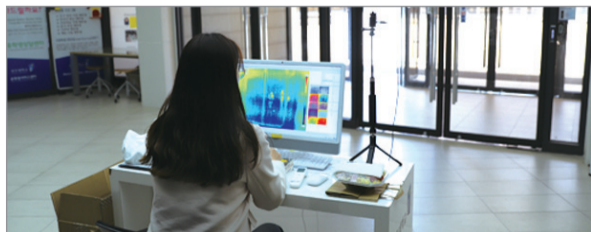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대집합소는 바로 건물 내 강의실이라고 볼 수 있다. 건물 방역을 위해 우리 학교 각 단대 건물 입구에는 총 6대의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히 중요한 곳은 강의실이다. 강의실과 같이 밀폐된 공간 내에서는 바이러스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람 간에 어느 정도의 적정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또 환기가 매우 중요하데,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항상 열어 두고 환기가 불가피해진다면 주기적으로 환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회관



▲스타센터



▲도서관



▲진리관



▲예술관



▲지역혁신관

학생회관, 스타센터, 도서관, 진리관, 예술관, 지역혁신관 순이다. 학교 내에서 방역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 점심시간

점심시간이 있는 학생들은 밥을 먹기 위해 학생 식당과 음식점에 가야 한다. 이때 안전을 위해 식당과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면 좋다. 탁자 사이 간격에 거리를 두고 일행이 아닌 사람들과는 가급적 간격을 띄워 앉는 것이 좋다.

식사할 때에는 서로 마주 보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여 주고



음식은 다 같이 나눠 먹기보다는 개인 음식으로 준비해 먹으면 감염의 위험이 줄어든다.

4. 손 씻기 예절

손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볼 수 있다. 오염된 손으로 생활을 하게되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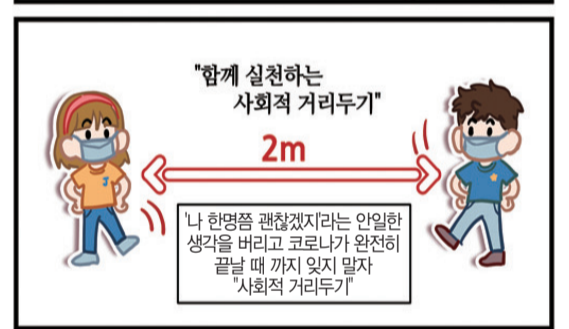
또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재채기를 한 직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과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방역에 학교와 학생들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잊으면 안 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을 2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각자의 생활권 안에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쓰기 등 이제껏 우리가 지켜왔던 것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고열(38도 이상)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를 꼭 지켜주길 바란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질병관리본부
KCDC

올바른 손씻기 6단계

- 1 손바닥
- 2 손등
- 3 손가락 사이
- 4 두손 모아
- 5 엄지손가락
- 6 손톱 밑

따라서, 손을 씻을 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

대한민국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이 상당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현재 배달의 민족이 압도적인 시장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이는 인구 및 트렌드의 변화로 외식 산업이 배달 중심으로 재편된 덕분이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제작년 2722억 원의 매출과 59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은 혼자 사는 1인 가구 특히 젊은 층의 1인 가구는 음식의 재료를 직접 구입하고 조리하는 과정의 번거로움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1인 가구의 증가는 곧 배달음식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그 밖에도 맛별이 부부 등의 증가와 폭염, 한파 등이 이렇게 배달 서비스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배달 앱은 급격하게 성장했으며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나갔다. 이들은 업주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시장을 장악했지만, 현재 많은 논란의 중심 속에 있다. 이번 호에서는 배달의 민족의 단기간 성장 이유와 수수료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배달의 민족 성공 요인

국내 스타트업 중 가장 핫한 브랜드인 배달의 민족은 혁신적인 마케팅을 통해 단기간 성장했다. 크게 5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오늘은 땡긴다'이다. 이 광고가 나왔을 때의 반응은 과히 혁명적이었다. 음식의 소리만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국내 최초 ASMR 광고였으며, 자막을 최소한으로 해 심플함을 강조했다. 둘째는 배달의 민족 무료 폰트이다. 개성 있는 폰트를 만들어 무료 배포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를 사용하게끔 했다. 이로 인해 배달의 민족은 무료로 가치를 주는 브랜드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주는 동시에 업무를 하는 와중에 배달의 민족을 떠올리게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왔다. 세 번째는 치몰리에 자격시험이다. 치몰리에는 배달의 민족에서 만든 치킨 전문가 자격 시험이다. 응시자가 몇십만 명에 달했으며 이들을 통해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네 번째는 배달의 민족 신춘문예다. '치킨은 살 안 찌요, 내가 찌요'와 같은 문구가 배달의 민족 신춘문예 수상작이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했으며, 이 중 수상작들은 각종 광고 채널에 실려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해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이다. 배우 류승룡이 나오는 광고로 이 문구가 지금의 배달의 민족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이 광고를 한번 본 소비자들도 기억하게 할 만큼 광고의 역할을 해냈다.

지금까지 설명한 마케팅은 고객 중심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배달의 민족과 같은 스타트업 기업은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 장기적인 목표가 아닌 초단기 목표를 빠르고 많이 설정하고 검증하는 방법으로 해내야 한다.

배달의 민족 수수료

최근 수수료 과금 시스템을 바꾸면서 '배반의 민족'이라는 별명과 함께 배달 앱의 독과점 문제는 생각보다 크게 번졌다. 그동안 잡아왔던 상인들의 목소리가 이를 기점으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음식점은 배달에 치중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다. 원래 배달 앱들은 수수료 기반으로 운영된다. 앱을 통해 들어온 주문액의 일정 퍼센트를 업주가 회사에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 <오늘은 땡긴다>



▲ <신춘문예 수상작>



▲ <우리가 어떤 민족 입니까>

바뀐 수수료 제도는 매출액의 5.8%를 받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한 식당이 정액제일 때 내던 수수료가 35만 원 정도였는데, 바뀐 방식으로 인해 한 달에 내야할 돈은 170만 원으로 이전에 비해 140만 원이나 늘게 되었다. 배달의 민족은 바뀐 수수료 체계가 연 매출 3억 원 미만 영세 업주에 유리하다고 반론했지만, 영세 업주 상당수가 수수료는 얼마 줄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단체들은 배달 건수가 많은 업체는 물론 월 매출액이 2백 만 원이 조금 넘는 소규모 가게도 이전보다 손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실상 필수 가격 인상이자 독과점의 폐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국내 배달 앱 시장 2위 기업인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을 갖고 있는 독일기업이 지난해

국내 1위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면서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등이 우려됐었다. 이번 논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배신의 민족, 배반의 민족 등의 별명을 붙여 비난을 했다. 이와 같이 업주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배달의 민족은 이들의 압박에 밀려 과금 방식 변경안을 전면 철회했다.

독과점 기업의 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달의 민족 수수료 논란의 핵심은 독과점이다. 이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 일이 '정부의 영역에서 하는 것인가'라는 말 또한 나오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는 시장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고 수수료가 비싸면 배달의 민족이 아닌 다른 배달 업체를 쓰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배달의 민족은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달 앱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이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같은 회사를 모기업으로 한다는 것이다. 독일 Delivery Hero라는 업체가 이들을 모두 인수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 국내 배달 시장의 90% 이상을 이 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독과점인 것이다. 형제 회사가 더 비싸기 때문에 기존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고 있던 자영업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대응책을 강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5일 요금 체계 개편을 "독과점 배달 앱의 횡포"로 규정했다. 정의당에서는 배달의 민족을 '배신의 민족'이라고 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게시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와 독점 방지를 위해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인천광역시, 충북 제천시 등에서 공공 배달 앱 서비스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들이 개발할 공공 배달 앱은 군산에서 개발한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의 '배달의 명수' 공공 배달 앱은 작년 7월부터 개발하여 올해 3월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전국 최초 공공 배달 앱이다. 특징은 결제수수료를 제외하면 수수료나 광고비가 들지 않아 상인들에게 부담을 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들에게도 지자체 상품권을 활용하면 할인받을 수 있게 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공 배달 앱이 성황리에 정착한다면 독과점 문제와 사기업의 횡포 문제도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합병을 하는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0억 원 이상이고 나머지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 원 이상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대상이 된다. 우아한 형제들은 2018년 기준으로 매출이 3000억 원을 넘어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므로 인수합병이 독과점이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Delivery Hero와 배달의 민족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인수합병 내용에 관한 서류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Delivery Hero와 배달의 민족 모두 법률사무소를 통해 서류 접수를 준비 중이다. 심사는 승인, 조건부 승인, 불허의 형태로 이뤄지며, 심사 기간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린다. 두 회사가 인수합병 했을 때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수합병을 불허할 수 있다. 다만, 기업결합을 해도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오면 예외적으로 인수합병 허용이 가능하다. 공정위 부위원장은 "수수료 체계 일방변경 논란 이후 관련 상황을 챙겨보고 있다"면서 "수수료 문제뿐만 아니라 경쟁 당국 입장으로서 특히 '정보독점'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기업 심사를 앞둔 해당 업체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배달의 민족의 백지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 심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독점의 폐해를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켰기 때문이다. 이들이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음식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더 유용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앱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유성훈 기자(ysh3277@jj.ac.kr)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배달의민족 광고 · 수수료 체계 개편 * 자료=배달의민족

개편 전(정액제)	개편 후(정률제)
<p>광고비 — 건당 8만8,000원X∞</p> <p>↓</p> <p>무제한으로 가능</p> <p>수수료 없음</p>	<p>광고비 — 건당 8만8,000원X3건</p> <p>↓</p> <p>매장당 최대 3건으로 제한</p> <p>+</p> <p>주문 건당 수수료 5.8%</p>

우리 사회의 그림자, 익명성

최근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연예인들의 소식을 적지 않게 듣는다. 원인 중 하나라고 여겨지는 악플은 익명성이라는 그늘에 가려진 세균처럼 너무나 쉽게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다. 이번 기사는 익명성의 기능과 그 속에서 악플 등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익명성의 양면성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익명성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사회적 특성이다. 이 사회적 특성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특성까지는 아니었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떠오르게 된 특성이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뉴스 기사에 익명으로 자기 생각을 댓글로 작성하고, 익명으로 어떤 내용을 유출, 폭로하고, 자신과는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행세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어렵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게 되었다. 이처럼 인터넷이라는 또 하나의 소통 창구가 생기고 그곳에서 익명성이 자유자재로 활용되면서 그 장단점 역시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장점부터 살펴보자면 익명성의 대중화로 사람들이 원래대로라면 쉽게 꺼내지 못한 이야기들을 익명성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쉽게 꺼낼 수 있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개인의 처지를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려 조언을 구하거나, 익명성을 활용하여 개인의 경험을 얘기해주며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에 조언해주기도 한다. 즉,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으니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또 대중들은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세상의 부조리함을 신원 노출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알리기도 한다. 원래라면 자신의 신원이 위협에 노출될까 두려워 폭로하지 못할 내용을 익명이라는 보호장치 아래 안전하게 부조리함을 폭로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유로운 익명성의 사용은 표현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받는데 일조하는 역할 역시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익명성의 장점보다는, 익명성의 단점이 더욱더 주목받고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익명성의 폐해로 나타나는 안 좋은 부분들이 뉴스 기사로 보도되고, 익명성 때문에 타인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현대사회는 익명성이라는 양날의 검에 매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발생하여 국민적인 공분을 산 'n번방' 사건도 익명성이라는 사회적 특성을 활용하여 그 규모를 키울 수 있었다. 일반인들이 잘 이용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사용해서 범죄정보를 공유했고, 보안기능이 강력한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 착취했다.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한 n번방으로 생긴 수익과 범죄자금 역시 익명성을 활용하여 조달, 은닉했는데, 거대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받는 일명 '다크코인'을 n번방의 입장료로 받아 경찰 수사의 혼선을 주고 있다.

이 외의 다른 단점은 익명성을 활용하여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을 마치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내는 의견인 것처럼 위장하여 대중들에게 그것이 다수의 의견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렇게 정보를 조작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는 여론조작은 각종 문제에 있어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든다.

익명성 때문에 드러나는 단점 중 현대사회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바로 악플이다. 악플 때문에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심한 경우 자살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는 매체를 통해 유명한 연예인 등이 악플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선택했다는 보도를 많이 접해왔다. 익명성이라는 방어수단 덕분에 사람들은 일종의 안전감을 가지고 악플을 작성한다. 익명성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의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제도임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학사회의 익명성



익명성에 숨은 문제점들이 비단 연예인만의 골칫거리가 아니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악성 댓글이 난무하며 평범한 인터넷 이용자에게도 그 영향을 끼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요즘 같은 시대엔 모두가 악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학교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에서도 무분별한 공격성 댓글과 여론몰이가 최근 논란이 되었다. '에브리타임'은 대학생들을 위한 시간표 스케줄러와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현재 400만에 가까운 이용자를 보유하고 전국 대학생들의 과반수가 이용한다고 볼 수 있어 더욱더 바르게 사용되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비방하는 글과 왜곡된 사실들이 많아 문제시되었다.

우리 대학도 '에브리타임' 커뮤니티가 개설되어 있는데, 여타 다른 대학과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의견을 달리하는 글들에 대한 과격한 표현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내용 또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글들이다. 우리 대학에서 화제가 된 사건들 중 지난 4월 23일에 진행된 문화관광대학 학생자치기구장 보궐선거를 예로 들 수 있다.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과거 문제가 대두되어 함께 출마한 후보자와 그

들을 등록시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틀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야기는 입소문과 더불어 '에브리타임'의 게시판을 통해 삼시간에 퍼져갔으며 이 소식을 접한 학생들로부터 비난이 쇄도했다. 이 일은 당연히 선거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해당 선거본부에서는 낙선 후 입장표명문을 게시판에 남겼다. 선거 반복을 위한 글이 아닌 지난 사건에 관한 해명 글이었고 사건의 개요와 와전된 내용들을 짚어주었다. 근간이 되는 문제는 있었지만 사건을 부풀려 해석하게 만든 요소들이 허위사실로 밝혀졌고 해당 후보자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들이 받을 처벌이 가볍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죄목을 말한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일반 명예훼손죄 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직접적인 비방 글로 처벌받는 사람 이외에 몇몇 게시판 이용자들이 사과의 뜻을 남겼다. 소위 '카더라'라고 불리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말에 휘둘러 악성 댓글에 동조하여 이번 사건을 키우고 후보자와 관련된 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전했다.

성숙한 시민의식의 필요성



익명성이 두드러지는 곳은 역시나 인터넷 공간이고 이곳은 이미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인터넷 이용자가 앞으로 늘어남에 따라 익명성의 역기능도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혀 갈 것이다. 익명성의 문제가 커뮤니티 관리 문제 등의 여러 요소들로 포함해 이루어져 있지만, 결국 이용자들의 의식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모두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기에 언제나 올바른 사실만이 전파되는 못하고, 공격적인 성향의 이용자도 있다. 발전성 있는 인터넷 문화를 도모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비난에서 벗어나 발전성 있는 비판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요구될 것이다.

글: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일러스트: 진서연 기자(wlstjdusl@jj.ac.kr)



슬기로운 집콕 생활 실천하기 2

5월에 들어서자 기온이 점차 올라가 벌써 초여름의 기후를 보여주고 있다. 더워지는 날씨만큼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집에 있는 동안 나도 모르게 쌓인 지방들이 걱정이 다.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하여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헬스장이나 다른 운동을 등록하자니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선다. 아직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 중인데 혹시 모를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사용 방법을 잘 모르는 헬스 기구에 대한 한계 그리고 헬스장 가는 게 귀찮아서 등록 후 집에서 누워만 있을 것 같은 나 자신이 못 미덥다. 그렇다면 요즘 많이 한다는 홈 트레이닝은 어떨까?

홈 트레이닝(home training)은 헬스장에 가지 않고, 거창한 도구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말한다. 꼭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니라도 체력 증진과 집에만 있어 게을러진 나를 위해 운동을 해보자.

기자가 준비한 홈 트레이닝은 운동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닌 운동 초보자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운동을 오경석(경기지도학과 18) 학우의 팁과 함께 하루 30분 투자로 매일 할 수 있는 루틴으로 소개한다.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은 이제 그만! 땀 흘리는 멋진 나를 상상하며 내 몸의 숨은 근육을 깨우자. 전주대 교육방송국과 협업하여 준비한 홈트레이닝은 유튜브 채널 전주대학교 교육방송국 JEBS에서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시청할 수 있다.

※전주대학교 교육방송국 JEBS 채널에서 홈트레이닝 영상을 시청하고 운동하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태그(#전주대학교교육방송국, #전주대방송국)하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 이수용 기자(yong5135@jj.ac.kr)

◆◆ 상체 운동 ◆◆

1. 푸시업(push-up)

▶ 운동 부위

1. 가슴
2. 팔

▶ 운동 방법 (25회 / 4세트)

1. 팔을 어깨너비보다 살짝 넓게 벌리고, 손목-팔꿈치-어깨가 일자가 되도록 하여 손바닥으로 땅을 짚는다.
2. 머리-어깨-골반-발꿈치가 대각선 방향으로 직선을 이루도록 한다.
3. 가슴이 땅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내려갔다 올라온다. (내려올 때 팔꿈치의 각도는 45도 정도만 벌린다)

푸시업은 초보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상체를 단련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다. 푸시업을 처음 해본다면 무릎을 굽히고 시도해보자.



2. 백 푸시업(Back push-up)

▶ 운동 부위

1. 등
2. 후면 어깨

▶ 운동 방법 (10회 / 4세트)

1. 양옆으로 책의 높이를 15~25cm 정도 쌓아 올린다. (마땅히 올릴 것이 없다면 맨바닥에서도 가능)
2. 팔꿈치가 책에 닿는 부분을 어깨에서 45도 정도로 하여 책 위에 올린다.
3. 가슴을 최대한 하늘로 내민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들어 올리고, 머리와 가슴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4. 상체를 최대한 들어 올린 상태에서 3~5초간 버티준 뒤, 천천히 내려온다.

백 푸시업은 등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운동으로 아침에 간단하게 스트레칭하기에도 좋다.



3. 플랭크(Plank)

▶ 운동 부위

1. 복근
2. 코어 근육(척추, 골반, 복부를 지탱하는 근육)

▶ 운동 방법 (30초 / 4세트)

1. 어깨와 팔꿈치가 위에서 봤을 때,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팔꿈치와 손의 각도가 45도 정도 안으로 오므리고, 머리-어깨-골반이 수평이 되도록 앞드린다.
3. 복근과 엉덩이에 최대한 힘을 쥐서 골반과 등을 동그랗게 말아준 채 자세를 유지한다.

플랭크는 기본적인 코어 힘이 약한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자세만 보고 쉽다고 생각하는 금물이다.



4. 마운틴 클라이밍(Mountain climbing)

▶ 운동 부위

1. 복근
2. 심폐(심장과 폐)

▶ 운동 방법 (20초 / 3세트)

1. 머리-어깨-골반-뒤꿈치가 대각선으로 하여 직선이 되도록 앞드린다.
2. 복근에 힘을 주고, 엉덩이가 많이 들리지 않는 자세에서 한발은 무릎이 팔꿈치 전까지 오도록 당겨주면서 동시에 다른 한발은 쭉 펴 준다.
3. 위 행동을 되도록 빠르게 반복해준다.

마운틴 클라이밍은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으로 엉덩이 위치는 최대한 허리선과 일치하게 만들어야 한다.



김갑룡 교육부총장 인터뷰

① 본교를 이끌게 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 먼저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단 말씀드리면서, 본교를 이끌게 되었다는 표현도 왠지 제게는 좀 어색합니다. 저는 우리 대학을 이끄시는 총장님을 보좌하여, 우리 대학의 장기발전계획(JJ VISION 2025)에서 목표로 내세운 비전이 무난하게 성취되도록 하는 데 일정 역할을 하는 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구성원들과는 달리, 맡은 직책과 부여받은 역할이 있으므로, 취임 당시부터 지금까지 막중한 부담감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대학에 처음 교수로 부임하여 첫 학기를 시작한 지가 어언 30년이다 되어가고 있고, 그동안 기획처장이나 교무처장 등의 보직을 이미 수행한 경험이 있지만, 여전히 어렵고 변화무쌍한 대학 환경에서, 중책을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앞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비전의 성취를 향해 우리 대학이 조금이나마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함께 일하시는 대학 본부의 분들과 또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과 협력하여, 최선의 힘과 노력을 쏟을 생각입니다.

② 2020년 새롭게 맞은 올해, 자신의 역할에 맞춰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2020년을 맞아마자, 다른 어떤 계획을 논할 틈도 없이, 코로나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가장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래 교육부총장은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최고의 품성과 능력을 갖춘 성공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내 모든 관련 부서들을 챙기고 살피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봅니다. 대학 내에서 성공적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서, 몇몇 구성원들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부서와 모든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협력과 상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교육부총장은 이 과정에서 여러 부서, 구성원들의 협력적 의지와 마음들을 자아내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임기간 동안 이러한 면에서 나름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성원들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확산을 최소화함으로써, 이번 학기 학사일정이 무사히 마쳐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③ 내가 바라는 전주대학교는? 또 맡으신 역할에 따른 결과가 반영된 학교의 모습은? 어떤모습인가요?

- 우리 대학은 전북 지방에 위치한 사립대학입니다. 소위 지방사립대학이죠.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라든가, 혹은 지방에 위치하더라도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한다면 또 사정은 다르겠지만, 지방사립대학인 우리 대학으로서는 여느 타 지역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신입생 충원을 극대화나 학생들의 중도이탈 최소화, 그리고 취업률 극대화 등의 문제들이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학의 지난 수년 동안의 성과는 전북지역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상당한 부분 도내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해서 각종 교육성과를 탁월하게 창출하는 대학으로서의 모습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들이 우리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점을 숨기고 싶지 않은 대학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탁월한 교육시스템과 환경을 갖추는 것입니다. 입학한 학생들에게 만족감과 성취동기를 충분히 자극할만한 교수법, 학습법, 교육 시설 등이 골고루 갖추어지도록 힘을 쓸 생각입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은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대학인만큼, 모든 학생이 참된 기독교적 성품을 갖추고 졸업하도록 살피고 지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교에 부임한 이래로 지금까지 세월이 상당히 흘렀다고 볼 수 있지만, 부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사항으로서 '품성'을 언급하지 않



은 적이 없었습니다.

④ 업무 관할 직제를 보니, 학생들에 관련한 부서들을 세세히 나눠 관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 부서들을 통한 학생들이 바라는 전주대학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교육기관 특히 대학이 한 사회 내에서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을 시간적 순서로 보면, 신입생들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일정 기간 교육한 후, 사회에 진출(취업, 진학 등)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교육부총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이 소홀함이 없도록 총장님을 보좌하는 자리입니다. 우선, 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입시홍보 활동과 입시 설명회, 유용한 전형방법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입학처, 입학한 학생들이 잘 짜여진 교육과정에 따라 교양 및 전공 분야의 학문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교수법과 학습법의 연구 및 보급 확산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혁신본부, 우수 교수님들의 선발과 각종 지원업무 그리고 수업 등 학사 일정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무처, 학생들에게 장학금 등 복지지원과 취업 성과 제고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통한 취업성과 극대화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취업처, 그리고 이러한 모든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및 재정 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처 등의 업무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각 부서의 업무들이 모두 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입학할 때 가졌던 그리고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적 목표나 비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쉬운 말로 한다면, 입학처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정확한 입시자료와 전형요령 등을 제공해주는 전주대학교를 원할 것이며, 교육혁신본부와 관련하여서는 학생들의 미래 성공을 위해 보다 유용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과 제도, 교수법이나 학습법을 구사토록 함으로써, 모든 수업의 흥미와 유용성이 높은 전주대학교이기를 원할 것이며,

교무처와 관련하여서는 우수한 교수님들을 모셔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으로 학생들의 미래에 직접 도움을 주는 수업을 운영해 주는 전주대학교이기를 원할 것이며, 학생취업처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많은 장학혜택과 학생활동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유용성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 성공을 보장해 주는 전주대학교이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한 기획처와 관련하여서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등 모든 예산 운용을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합목적으로 운용하는 전주대학교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재임기간 동안 우리 대학이 이러한 학생들의 바람에 최대한 더 가까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⑤ 전주대학교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 비전이라 함은 '바람직한 미래상'을 말합니다. 우리 대학의 비전은 앞에서 언급한 『JJ VISION 25』에 잘 나와 있듯이, "교육 가치 창출 1위, 기독교 명문사학"입니다. 대학은 교육기관이므로 교육을 통해 이 사회에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면에서 최고의 교육 가치를 창출하는 대학이라는 미래상을 내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이 기독교 정신의 구현에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기독교적 성품이 잘 갖추어진 인재를 양성하는 명문 사립대학이라는 미래상을 내건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의 우리 대학의 사명이자 목표를 미래상으로 담아, 한마디로 "최고의 교육 가치를 창출하는 기독교 명문사학"이 되겠다는 점을 비전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은 대학 흥피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비전은 하루아침에 성취될 수는 없을 것이며, 대학의 온 구성원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할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류두현 대외부총장 인터뷰



① 먼저 본교를 이끄는 소감 부탁드립니다.

저는 1991년 전주대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강산이 세 번 변할 정도의 세월이 흐른 것이지요. 처음 전주대에 채용 면접을 받으러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캠퍼스를 돌아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주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고, 그 당시만 해도 전주대 캠퍼스는 전주에서도 외곽지역이어서, 버가 촘촘히 심어진 논과 미나리밭을 한참 거쳐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설픈게 시작한 전주대가 평생직장이 되고 대외부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민감이 교차합니다. 이제 바라보니 이곳까지 이끄신 이가 주님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30여 년간 전주대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명문사학으로 거듭나고 지역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게 된 것은 구성원들 수고와 노력으로 가능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주대의 지나온 역사를 볼 때 그곳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하심이 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일꾼을 보내시고, 절망적인 순간에 피할 곳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순간들이 그분의 계획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총장의 직임을 맡은 일도 주님의 계획이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② 2020년 새롭게 맞은 올해, 자신의 역할에 맞춰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올해부터 2인의 부총장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행정지원 체제를 세밀히 관리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수님들의 교육과 연구, 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명문사학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외부총장은 대학의 대외 관련 업무와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을 추스르며, 대학의 본질인 교육과 연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대학에서는 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때로는 수익 창출을 위하여 많은 사업이 수행되어왔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한정적 대학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 사업단 협력위원회를 구축하여 사업들을 체계화하며 중복성을 살펴보도록 협의하고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여 즐거운 캠퍼스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③ 내가 바라는 전주대학교는? 또 맡으신 역할에 따른 결과가 반영된 학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대학이 존재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기업 몇 개가 있는 것보다 더 큼니다. 거점 국립대가 있는 전주 지역의 경우 지역 경제와 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에 있어 전주대의 상대적 역할이 미진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립대학은 국립대학과 비교하면 신속하고 탄력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의 중심대학이 되기 위하여서는 전주대학교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하였던 지역협력과 지역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전략산업이나 특성화 사업 등을 도출하여 두뇌집단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구상하고 수행하기 위한 교내 조직을 구성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장은 총장님의 업무를 보좌하여 대학이 원활히 운영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직책입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야기될 교육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예측 및 대비하고, 향후 급변하는 교육 시장에 대하여 준비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구성원들이 피로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대학 구성원들이 피로감과 충격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④ 업무 관할 직제를 보니, 학생들에 관련한 부서들을 세세히 나눠 관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 부서를 통한 학생들이 바라는 전주대학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대외부총장이 관리하는 부서 중에 학생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부서는 선교봉사처일 것입니다. 선교봉사처에서는 채플과 기독교 관련 필수교양 과목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봉사처 산하 사회봉사센터에서는 사회봉사 교과목의 운영과 학생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움이 있고 예수님과 같은 행함이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기독교 대학인 전주대의 특징 있는 교과과정이기도 합니다. 관련 과정을 이수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대학에서 해당 교과목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반추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역 교회와 기관에서 많은 분이 시간과 물질로 섬기는 모습과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의 모습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넘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강의실에서 배운 어렵지만 지식이 봉사활동을 통해 구체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순히 취업을 위한 자격 요건을 쌓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⑤ 전주대학교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전주대학교가 추구하여야 할 비전으로 이해하고 답을 하겠습니다. 전주대학교는 단순히 고등인력을 양성하는 200여 개의 4년제 대학 중에 하나의 대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라는 설립 목표를 갖고 설립된 대학으로서 단순한 지식이 아닌 지혜를 가르치는 대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제2의 칼빈’으로 불린 네덜란드의 위대한 신학자요, 교회 개혁자요, 정치가요, 언론인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서거한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전주대학교도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성경의 지혜를 통해 교육목표를 정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실용적인 기독교 대학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이 자기만의 천재성을 발견하여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카이퍼의 정신으로 기독교적 정신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카이퍼의 정신을 공유하고 카이퍼적 실용 교육을 도입하며, 학생들의 자존감을 고양하고, 자기 안에 적성을 도출하여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학생들이 꿈꿀 수 있고 그 꿈을 구체화하며, 구성원들이 열정을 불사르고, 전주대가 있어 지역과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서하 기자(201915015@jj.ac.kr)

2020-1학기 채플 진행 지성 채플 편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만남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대화이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요, 끊임없이 치솟는 성취 욕구와 집착과 탐욕을 훌쩍 뛰어 넘어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 캐빈 밀러(Calvin Miller)의 말이다. "탐닉과 영성을 맞바꾼 우리는 자유를 잃은 것이 되었다. 파스칼이 옳았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만 채워 줄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의 공허가 있다... 하나님이 그 내면의 공허를 성령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는 산다. 그러나 그 공허가 채워지지 않으면 파괴적인 욕구들이 우리의 좋은 의도들을 통해 때를 지어 몰려든다." 그는 계속해서 말한다. "그것은 능력을 주시는 위대한 신 분과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늘 나타나는 일종의 무력감이다.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여지를 남겨 두지 않으면 결국 번잡한 제자도의 요란스런 일정들만 남게 된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도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번잡함을 떠나 변함없는 헌신과 고요히 흠모하는 삶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코 요란스러울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외형적인 성취를 추구하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외시적인 기도에 매달려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기도 잘하는 사람'임을 은연중 자랑하거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은근히 과시하려고 한다. 예수님이 꾸짖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밀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아침에 불병거를 위해 기도하고 어둑해질 무렵 그 불병거를 타고 교회로 가기 원한다. 불을 위해서는 거의 기도하지 않으면서 손에 들고 있는 성냥갑을 찾으려고 눈을 뜬다."

▼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 주신 '은밀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상이 따른다. 그 응답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최선이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6).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국가적인 전염병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산 방지 및 대처 차원에서 2020-1학기 채플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프라인 개강이 진행될지라도 채플은 1학기 전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각 채플의 특성에 맞게 테마를 유지하며 채플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지성 채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양성은 교수님(지성 채플 담당교수)과 남지구 선생님(지성 채플 담당 행정원)을 인터뷰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양성은 교수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주대학교에서 지성채플을 담당하고 있는 양성은입니다.

남지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성채플을 담당하고 있는 남지구 행정원이라고 합니다.

Q. 반갑습니다. 지성 채플의 담당으로서 지성 채플의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양성은 교수님: 먼저 지성채플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에 따른 포괄적이고 다양한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배움을 가져가는 채플인 것 같아요~'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더 나은 채플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채플 봉사자들이 있다는 것, 그게 큰 장점이지요.

남지구 선생님: 지성 채플이 강의가 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외에 특집으로 진행하는 채플이나 게스트를 통해 학생들이 더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말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Q. 네, 저 역시 너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학기 온라인으로 채플을 진행하면서 힘든 부분은 없으신가요?

양성은 교수님: 물론 있죠. 아무래도 직접 마주 보고 하는 강의가 아니다 보니 짧고 굵은 임팩트가 없다는 점..? 그리고 얼굴을 보고 소통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직접 마주 보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크죠. 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크고 작은 이벤트 선물도 더 많이 나갈 수 있고, 조별 활동을 통해 공유하고, 친해지는 부분도 많은데 이 부분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에 부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 화면발을 잘 안 받더라고요. 카메라가 익숙하지 않다보니 어색한 부분이 좀 있죠. 그래도 나름 적응하면서 재미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지구 선생님: 아무래도 저는 이번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촬영과 편집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면서 지성 채플 봉사자들과 함께 촬영할 때 시간을 조율하거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컨텐츠를 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정도..? 지성 채플 봉사자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어렵더라고요.

Q. 네, 그런데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멋있네요!

마지막으로 지성 채플을 듣고 있는 수강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양성은 교수님: 일단 먼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잘 들어주시는 부분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확인해보면 진솔한 마음으로 작성해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임해



▲ 남지구 선생님(왼), 양성은 교수님(오)

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싶은 건, 채플에 대한 선입견, 편견보다는 조금 더 마음을 열어주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채플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채플도 여러분들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촬영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다음 학기 지성 채플 준비물은 설렘과 기대입니다. 저 역시 설렘과 기대함으로 만나는 날을 기다리고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

남지구 선생님: 저 역시 온라인 강의인데도 잘 들어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진심 어린 피드백, 좋은 칭찬들이 있을 때마다 채플이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음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번 학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든 학생이 잘 들어서 수강생 모두가 패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학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지원실 이유정(dbwj8530@jj.ac.kr)

예배안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205호)
- 이진호 목사 (대학교회 206호)

비

-한병수-

비가 내린다.	마음이 젖는다.	막아도 젖는다.
땅을 두드린다.	여름이 흥건하다.	축축해도 유쾌하다.
운도를 내린다.	세상이 축축하다.	흥건해도 깨끗하다.
비를 막는다.	하늘을 씻는다.	
몸만 가린다.	공기가 깨끗하다.	
비가 우산을 비웃는다.	마음도 상쾌하다.	

기도문

전주대학교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당신이 세우시고 이끄시는 이 캠퍼스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많이도 타락하고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 전주대학교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학이 되길 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전주대학교 하나만이라도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대학 되게 하옵소서.

캠퍼스 여기저기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간구의 소리가 들리게 하옵소서.

캠퍼스 여기저기에서 전심으로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캠퍼스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 앞에 기뻐하는 탄성의 소리가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당신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나눔과 고백이 캠퍼스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캠퍼스에서 복음 듣고 기쁨으로 전하는 자의 발걸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전주대학교에서는 하나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남을 고백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게 하옵소서. 전주대학교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대학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이범수 과장 (국제교류원 /직원신우회장)





진리의 샘

5년간의 암 투병, 인고의 긴 세월이 지나갔다. 그동안 아내를 괴롭히던 17센티의 암이 서서히 줄더니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MRI와 CT가 귀땀했다. 지난주에 들은 낭보였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다. 담당하던 의사가 감격한다. 물론, 이후로도 암의 재발과 전이는 가능하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몸에 질병에 의해서든 사고에 의해서든 비정상인 발생시키는 건강의 문제를 많이 생각했다. 내 주변에는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해도 각종 질병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교수에게 일어나는 불의의 교통사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며 이웃에게 늘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여인에게 급습한 몸살 뇌경색, 세상에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남을 괴롭힌 적도 없는 겨우 걸음마를 떤 아이에게 발생한 골수암, 성실하게 공부해 좋아하는 대학과 학과에 드디어 합격한 수험생의 다리에서 발견된 육종 등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힌다.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일까? 질병과 죄를 연동시켜 생각하던 제자들의 고약한 버릇이 이따금 전두엽에 올라탄다. 물론 죄와 질병이 인과율의 포승줄로 묶이는 경우가 왜 없겠는가!

그러나 질병과 죄는 대체로 무관하다. 태생적인 맹인에 대해 예수님께 제자들은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단호하

사랑의 증인

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요9:3).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고, 약함도 강함으로 바꾸시고, 추함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시고, 미련함도 지혜로 바꾸시고, 어둠도 빛으로 바꾸시고, 가난함도 부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무지한 자, 비천한 자를 택하셔서 스스로 지혜롭고 유력하고 강하다고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 몸에 초청장도 없이 방문한 병이라는 불청객도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증명하는 역설적인 수단이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는 사탄의 광기에 견고한 테두리를 두르신 하나님의 섭리 말이다. 그래서 읍의 경우처럼 몸에는 온갖 악창이 갑옷처럼 피부를 덮고 그의 인생에서 난동을 부려도, 그의 영혼에는 여전히 기쁨과 사랑과 만족과 행복과 찬송이 위축됨 없이 당당하게 활보하는 그런 섭리 말이다.

진실하고 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질병의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를 증명할 후보로의 선택을 의미한다. 그는 어떠한 질병도 영혼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지 못함을 증명할 언선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입증할 위인이다. 참으로 진실한 사람은 비록 신체적인 어려움을 당하여도 영혼이 맑고 생각이 밝고 내면의 기쁨과 행복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다. 성경에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언급되고(롬5:3),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유지한 사람들의 이야기(고후8:2)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조언하는 사람의 이야기(약1:2)도 등장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쁨과 행복은 몸의 아픔이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선물임을 입증한다. 억지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마음의 상태로 꾸밈없이 입증한다.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태양은 비추고 비는 떨어진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사람의 도덕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찾아온다. 질병도 그러하고, 교통사고, 산불, 태풍과 쓰나미도 그러하다. 인간의 문명이 만든 무질서가 오랫동안 축적되어 더 이상 자연이 버티지 못하고 발생하는 자연의 모든 재해와 몇몇 사람들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인간의 모든 재해는 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폭력적인 자들만이 아니라 선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온유한 이들에게도 발생한다. 그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특정한 누구의 잘못을 색출하고 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 물론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객관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고통 속에서도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참된 사랑, 참된 배려, 참된 섬김, 참된 이해와 용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 대학교회 담임목사)



선교 이야기

성품채플 싸강... 잘 보고 계신가요?

코로나19 사태로, 여러분과의 만남이 지연되고 있네요.

사람을 한자로 ‘人’으로 표기하죠,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 관계를 맺어야 살 수 있는 존재, 행복도 기쁨도 공유하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그 무게도 가볍게 할 수 있는 공동체적 존재, 바로 사람(人)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상대방의 온전치 못함을 나의 책임으로 여기며, 보듬어 주는 존재. 어쩌면 기대며 살아야 할 존재인데 기대지 못하고 또한 기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존재인데,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불행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만남을 꺼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물건구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쇼핑의 증가, 줌을 통한 토론, 싸강을 통한 수업, 자전거 타기 등 혼자 하는 운동의 증가 등등.

만남을 가질 수 없다는 건, 처음에는 편한 듯해도 무언가 허전한 외로움을 줍니다. 풍성함이 없는 반쪽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

은 좋은 성품에 있습니다.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삶은 좋은 성품에 있습니다. 풍성함의 근원은 내가 살아가는 상황에 있지 않고 우리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외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 있다고 성경 속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립보서4:12)

성품 채플 싸강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아낸 웃음이 아닌, 연출된 분위기가 아닌, 저와 함께하는 행정 선생님들이 가진 성품과 흘러나오는 관계를 통하여 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성품으로 빛어지도록 의도하여 제작되고 있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음 받은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그대로 물려받았죠. 어디에 서 있어도,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마치 하나님이 하듯 하는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풍성할까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존재, 길을 잃어버린 존재, 파괴된 존재가 되어 버렸죠. 갈등과 깨어짐, 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으로 일관하는 삶이 되어 버린 거죠.

성품채플 싸강을 통해 우리의 온전한 성품을 한번 회복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팔로우 미~)

첫째 : 성품 채플 싸강은 수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영? 뭘미?

성품 채플 싸강은 내 인생의 필수템이다.

둘째 :성품 채플 싸강에서 내주는 과제는 숙제가 아니다! 영? 뭘미?

성품 채플 싸강의 과제는 내 인생의 덕질이다.

셋째 : 성품 채플 싸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 뭘미?

성품 채플 싸강은 폐지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가족이 되어야 한다. 포레버~~

여러분, ‘큰 바위 얼굴’ 아시죠? 품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품으면 그분을 닮아간답니다. 성품이, 삶이, 마음이...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이진호 초빙교수



정원속 초막교회



▲김준영 교수
(공과대학 건축학과)

스타가든은 본부로 올라가는 작은 길에 있다. 최근 활짝 핀 유채꽃들로 인해 학생들과 시민들의 발길이 잦아져 이목을 끌고 있는 이곳에 예배당이 새로 건설될 예정이다. 스타가든의 길들이 모이는 터에 진리관과 본부, 그리고 오솔길 쪽으로 향하는 초막 세 개가 결합된 예배당이다. 이번 예배당 건축설계를 맡은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김준영 교수님에게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았다.

①예배당을 건립하게 된 기획의도와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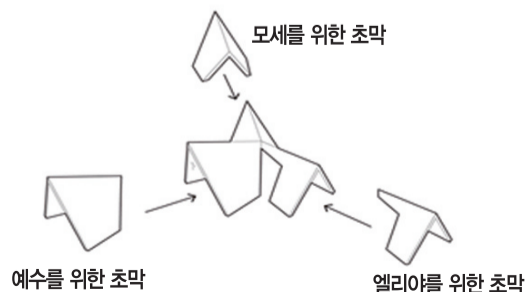
전주대학교는 기독교 명문사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예수님의 비전을 갖는 젊은 인재를 배출하려고 하는데,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 조형물은 전주대학교에 오시는 외부 시민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조성된 스타가든은 6,000평의 꽃이 가득한 정원입니다. 스타가든은 전주대학교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가든이 잘 조망되는 터에 조그마한 예배당을 만들기로 했고 우리는 이를 초막교회라 불렀습니다. 초막교회는 스타가든, 더 나아가 전주대학교를 기억하게 하는 공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②예배당 디자인에 추구하는 목표나 방향이 있으신가요?

초막교회는 작은 5평정도 크기의 예배당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 마태복음 17장 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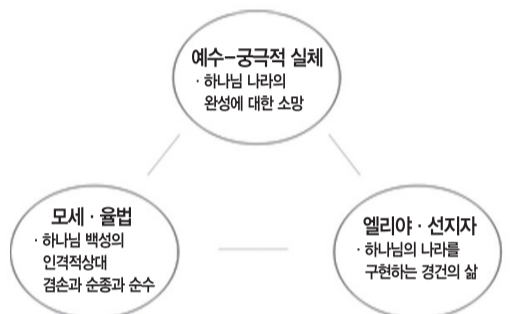


이 말씀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던 중 예수님의 용모가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 말씀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영광중의 예수님을 본 베드로처럼 초막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막은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는 가운데 생각했던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며 순종과 겸손의 삶을 고백하며 지낸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초막은 영광과 겸손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의미부여가 가능합니다.



디자인은 간단한 박공모양의 초막이 세 개 결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세 개의 초막을 예수초막, 모세초막, 엘리야초막이라 생각했고 각각의 공간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예수초막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전주대학교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초막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순종한 인생길을 묵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며, 엘리야초막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각 초막에서의 조망



▲(사진설명: 왼쪽부터 예수, 모세, 엘리야를 위한 초막)

〈예수를 위한 초막〉

예수를 위한 초막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여주는 듯한 스타가든(에덴동산)과 진리관(예수=진리) 그리고 그 너머로 학생회관 시계탑(예수=시간의 주인)을 조망합니다. 특히 초막 공간 내의 십자가는 학생회관 시계탑과 절묘하게 결합되어 보여서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를 위한 초막〉

모세를 위한 초막에서는 모세가 순종하며 걸었던 인생길을 기억하게 합니다. 공간은 예수를 위한 초막보다 작으며 친밀한 공간입니다. 공간에서 시선 방향은 등을 향하게 합니다. 이는 겸손과 순종, 순수라는 인격적 지향점을 제시합니다.

〈엘리야를 위한 초막〉

엘리야를 위한 초막에서는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 제사, 승천 등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공간에서 시선의 방향은 하늘을 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마음이 됩니다.

③대학의 선교회장으로서 비전은 무엇입니까?

교수선교회장으로서 보다 먼저 교수로서, 예수님의 한 제자로서 저 자신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구원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는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부여 받았지만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았던 니고데모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나

라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교수선교회는 매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전주대학교가 예배로 가득 차는데 교수선교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교수선교회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지만 선하고 크게 쓰시는 주님을 바랍니다.

④대학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 인가요?

네, 이 공간은 스타가든에 방문하신 전주시민들이 어떤 공간인가 하고 둘러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조용히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전주대학교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수도 있고요, 결국 초막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⑤위치를 스타가든으로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타가든은 전주시민에게 개방되는 6,000평의 정원으로 발전해갈 것으로 압니다. 꽃이 있는 열린 공원이기 때문에 전주대학교에 방문하시는 외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스타가든에서 쉬어갈 수 있고, 더욱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⑥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채플, 주말 예배 등)

5평 정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매우 친밀한 작은 채플이 가능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9명 정도의 성도들이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부에는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서 조용한 기도실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조용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⑦대학교회가 이미 있는데 어떤 활용 차이가 있을까요?

대학교회는 300석 정도의 예배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회와는 차별적으로 작은 소모임이나 기도 모임,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쉬어갈 수 있는 시간도 가능할 겁니다. 예배당은 집회의 공간이기보다는 작은 상징적인 조형물로서의 작은 공간입니다.



⑧완공 시일은 언제가 될까요?

2020년 11월은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서거 100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신칼빈주의를 시작한 분이라고 하는데, 이 분에 대한 행사가 올해 가을에 몇 가지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중 초막교회의 준공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교수칼럼

좋은 멘토



김수아 교수
(의과대학 환경생명과학과)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작년 여름, 면접을 보러 전주대학교에 처음 발을 디뎠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초행길이었던 나는 후문으로 들어와 캠퍼스 지도를 보고 전잠관 위치를 파악해 당당히 길을 나섰지만, 잘못된 방향 선택으로 인해 테니스장-스타센터-자유관-진리관-대학교회-예술관을 거쳐서야 전잠관에 도착할 수 있었다. 택시를 타고 갈 걸 하는 후회도 순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리고성을 매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캠퍼스를 걸었다.

내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분이 함께 손을 잡아 주었다. 동기, 선배들의 도움으로 즐겁게 학위 과정을 보낼 수 있었고, 지도 교수님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응원 덕분에 학위를 마무리하고, 미국에서 새로운 연구를 배울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또 박사 후 연구원 지도 교수님의 관심과 배려로 미국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미국 생활

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지금은 학과 교수님들을 비롯해 많은 교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새로운 캠퍼스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성장 과정 가운데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동기, 선배를 비롯한 많은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대학 생활이 됐으면 한다. 나 또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좋은 멘토가 되기를 희망한다.

대학 생활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찾고 성장해 나아가기를 오늘도 소망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캠퍼스는 조용하기만 하다. 학생들과 함께 복적이던 지난 학기가 그립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일상이 주는 감사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으며,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나 수업하고, 이야기 나누며, 즐거운 일상을 보내기를 바란다.



기자칼럼

지구에게 쓰는 반성문



진서하 기자

마트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비닐 봉투, 마트에 진열된 과대 포장 제품, 한 달에 1번 이상은 시켜 먹는 배달 음식, 카페 음료 테이크 아웃 컵과 빨대 등 우리는 플라스틱과 일회용 용품 사용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최근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공장 운영을 멈춘 중국 덕에 알다시피 우리나라 공기는 거짓말같이 맑아졌다. 올해는 다른 의미로 마스크를 쓰게 됐지만,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미세먼지와외의 사투에 마스크를 쓰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이렇게 삼시간에 대기 질이 좋아지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놀랍다.

인간이 활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덕을 본 곳은 우리나라 이외에도, 전 세계적 차원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각 이동수단과 공장 생산 등이 멈췄다. 그 후, 자연환경이 깨끗해졌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일시적인 상황이지만 우리가 자연을 위해서 조금은 덜 사용하고, 덜 먹고, 덜 생산하고, 덜 누려야 한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인간은 환경과 생태계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왔다. 효율과 편리함, 간편함을 추구하며 문명을 빠르게 발전시켰고 이런 기술의 발전은 자연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게 된 지 오래 됐으며, 인간이 버린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가서 섬이 되었다.

지구엔 우리의 삶의 터전이다. 지구에 안 좋은 영향이 끼친다면 우리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관심을 두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가장 책임을 갖고 나서야 할 선진국들은 각종 환경 조약에 점점 모습을 감추고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의 경제 성장과 풍족한 생활을 위해 지구가 아프다고 소리치는 모습을 알면서도 외면한 것이다.

우리 세상이 변하는데 따라오는 대가로 환경오염이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은 안다. 따라서 나라 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지만, 한편으로는 마냥 세계와 국가 차원으로만 바라보기 어렵다. 지구 공동체라고 불리는 21세기 속에 살면서 각 나라의 국민 한 명, 한 명이 한 행동들이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덜 만들게 될 것이고 덜 만들면 그만큼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소망해본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구와 우리의 아랫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지구를 위해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뀌길 바란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어간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바라는 지구의 모습을 돌려받을 것이다.

사설

생활 방역, 사회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클럽에서 코로나19가 새롭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 새로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는 생활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클럽과 방문자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기인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의 국내 감염병 상황을 어렵게 안정시켜왔다. 이런 사회 전체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 낸 감염병 상황의 안정화가 갑자기 무너지는 듯한 상황에 국민 모두는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더욱 우려되는 상황은 이 지역 방문자들의 대부분이 젊은 층이어서 감염이 되었다더라도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이어서 본인이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이 지역 방문자들의 자발적인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젊음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은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고위험의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전체 사회가 총력을 다해서 감염병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젊음을 발산하는 방법이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젊은이들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따라주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이 말하는 것은 이제는 국민 각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생활 방역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 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사람 간 거리두기, 마스크의 필수적인 착용, 밀폐된 공간 피하기, 기침 예절 준수, 비누로 손 자주 씻기 등 기본 수칙을 기본 생활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 방역은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생활 속 방역을 통해 나의 감염과 내 주변의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결국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자칫 생활방역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했다가는 새로운 집단감염이 확대될 수도 있다. 국민 각자가 사회·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방역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생활 방역의 필요성과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신문방송국 063) 220-2441 / news@jj.ac.kr
발행인 이호인 주간 김병기 편집장 김지은
편집.인쇄 (주)제일출판
인터넷신문 news.jj.ac.kr

The Future of Hanbok

by Lee Suyong & Kim Jieun, Reporters



▲ Hanbok designed by student designer, Jeon Yu Na, Park Soo Bin, Ko Eun Byul, from left to right, at the 2018 Graduation Fashion Show of the Department of Fashion industry

Hanbok that we wear today is similar to what our ancestors wore during the Joseon Dynasty which lasted for about five centuries in the Korean peninsula. It was the last dynasty before the country started its modernization. *Han* in the word Hanbok refers to Korean people and their culture. The name of Hanbok was coined as western people

began to visit the Joseon territory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opposite of Hanbok is Yangbok, which means western clothes.

These days people believe that Hanbok only includes children's Hanbok, women's Hanbok, a wedding dress, king's and queen's costume, and gisaeng's suit in particular. It is not

counted as everyday's casual wear any more.

Hanbok reflects oriental lifestyle, and its unique style of curvature displays elegance and comfort. Hanbok has put meaning in various ways. The Hanbok embroidery cherishes the wish for longevity, wealth, and prosperity of family members. It follows the patterns handed down from the past. There are important passage rites from birth to death. Hanbok was an indispensable item for these rites. At the first birthday called Dol, the baby wore a special costume and the whole village prayed for good health and fortune. Several promising objects were displayed on the table for the baby to pick up, and they foretold what the baby would achieve in the future. At the coming of age celebration, boys and girls were allowed to wear clothes for adults and change their hairstyle. Especially, at the wedding, both bride and groom wore beautiful and magnificent make-up and costume. It was a once-in-a-lifetime chance for commoners to wear the clothes only the noble could enjoy. The clothes worn by the bride's

parents were different from other events to add a special meaning to the wedding.

Recently, Hanbok has been established as a fashionable showing-off item on the SNS. As Hanbok becomes popular among young people, some middle and high schools are making a decision to choose Hanbok-style school uniforms. We think this policy will promote Hanbok more widely. Few people know the designation of Hanbok Day on October 21.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elebrating the day on October 21 since 1996.

In Jeonju, there are many ways to enjoy wearing Hanbok. It is easy to borrow different kinds Hanbok for an hour or several hours at a cheap price. You can walk around the Hanok village and, of course, take some pictures to make your experience fixed in your memory. We guarantee that the backdrop in Jeonju Hanok village will blend perfectly with your Hanbok.

Just try a pair of Hanbok pants, and you will fall into comfortable snugness immediately.

Corona 19 Virus: An Unfinished Struggle

by Yim Jeong Hun, Reporter

According to the KCDC, the number of patients infected with Corona 19 virus has recently decreased to around 10 a day. However, it's too early to feel at ease. We heard that a teenager who visited a nightclub in Busan on April 18 was confirmed infected. A similar but more serious case broke out in Itaewon, Seoul during the holidays in early May. Disease control activists and doctors are worried that people keep visiting crowded places. While asking "Why now?" the fear of, or the interest in, Corona 19 disease is definitely decreasing. More people are paying less attention to the virus, and some are even indifferent to it. You can meet with pedestrians and drivers who do not wear masks on the streets.

Countries like Germany and Israel impose fines for not wearing masks in public places. In some states of the U.S. and Tunisia, going out is prohibited. Now the number of confirmed COVID-19 cases worldwide has exceeded 3 million in 118 days, with the death toll over 210,000. We watch people waiting in line on television. They want to buy masks that they desperately need to fight against the virus. In other countries, it is said that they sometimes make masks out of a scrap of

cloth from T-shirts for it is impossible for them to get a decent face-mask.

The whole world is in a state of emergency! When I look around, however, I think young people don't agree with the world. They hang out in a cafe, take pictures in a place crowded with people, and go out to clubs. The golden holidays in early May was not an exception. Kwon Joon-wook, vice-director of South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eadquarters, warned that the holidays from April 30 to May 5 would be a major turning point. He pointed out that the Corona 19 virus could spread more widely as more people were going to be outdoors. Hotels and resorts in coastal areas of the East Sea reported a higher ratio of reservation compared to the previous month. The number of people who booked flights to Jeju Island increased as well. Even though the Corona 19 virus is unsparing and unobstructed while moving around, they think they will be out of the reach of the virus.

The government's social distancing policy was extended to May 5 and it has been softened to a policy of distancing in everyday life since then. It is not over yet.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in the U.S. announc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a second outbreak of the COVID-19 disease this winter. In particular, we need to be more careful at a time when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s gradually decreasing as is now witnessed. "The Corona 19 contamination is still in progress," said Jeong Eun-kyung, director of South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eadquarters on April 27. I think this is true to the fact and the chances are high that the spread of Corona 19 virus will not end until late in May.

The Corona 19 virus mutates from type A to type B, and from type B to type C, and it spreads around the world en masse, according to a Cambridge University research team. The spread of the Corona 19 virus is several times faster than SARS and other cases. Even some patients infected with the virus is asymptomatic for quite a while. Wearing a mask can protect both me and my neighbors from viruses. Currently, there is no country where it is as easy to get a mask as in Korea. You can buy three masks per week, instead of two. Let's make sure to wear a mask when we

go out. With each person's efforts, everyone will be safe from the Corona 19 virus. Let's make it a little longer to overcome the Corona 19 crisis even if it feels a little stuffy.

Meanwhile, foreign students are coming back to JJU campus. They are having difficult times returning to their places. Because of the new coronavirus, students who move into the dormitory must take several checkups before entering the dorm room. They have to check their temperature twice a week after moving into the dormitory. Students living in a studio apartment must call up the school twice a day. They say they cannot go out for fourteen days to follow the regulation of self-isolation. If they try to go out, the app gives warning. I think we can still keep our friendship alive though we are separated for a while. We have our cell phones. The virus does not care for nationality. Neither do we. There is a big difference, though. The virus separates people, but we connects them.

Let's wear a mask, wash our hands, keep distance, and stay healthy.

健康包送递祖国温暖



4月21日，全州大学中国留学生在疫情期间感受到了来自祖国的关爱和温暖。

中国驻韩国光州总领事馆的陈杰副总领事带着装满祖国关爱和温暖的“健康包”，来到位于全罗北道全州市的全州大学向全州大学的中国学生，以及全北大学、圆光大学、又石大学、群山大学等大学的中国留学生发放了健康包。全州大学副校长柳斗铉教授、全州大学国际交流学院院长柳寅坪教授及中国留学生代表参加了此次发放仪式。陈杰副总领事现场发放健康包，转达了祖国对海外学子的关爱，表示将按照国家领导指示继续在疫情期间为保障在韩留学生的生命安全和身体健康做不懈的努力。现场的留学生们也纷纷表示通过此次健康包传递活动，真实地感受到祖国的关爱和温暖。虽然身在国外，但是同学们都体会到了“祖国在身边”的感受。很多同学在朋友圈晒出自己收到的健康包，微信朋友圈一时间让祖国的健康包刷屏了。中国驻韩国光州总领事馆将健康包分两批全部发放到了领区返校的中国留学生手中（实习记者）。



韩屋村印象



全州大学国际交流院组织了韩屋村文化体验活动。尽管最近的天气一直阴雨绵绵，但是大家对于韩国文化的体验活动热情洋溢，一行40人分成组分别进行了韩屋村特别体验活动。大巴车行至韩屋村入口处，大家依次下车，立刻被眼前的街景所吸引。拾步徐行，看到了街边的带飞檐的各种造型的韩式传统古屋，互相错落，长廊对面还有网格状图案的长照壁，很适合拍照打卡。参观韩屋村少不了韩国传统工艺，这家馆的宣传口号是创新和法古，馆内保存了韩国古时的各种民间工艺，也有一些创新的工艺。设计非常奇特的是门口的那面墙，左边摆了古韵插花，右边白墙书写着韩国传统文字，中间的小几上放着白色的韩纸册子和签字笔，前来观光的人们可以随意留言，我也忍不住提笔写下新年快乐。这面墙真的特别适合拍照留念。旁边一家是纸艺馆，里面有韩国传统的各种纸类工艺，比如纸花，拓印，太极扇，彩纸灯笼，看到这些日常熟悉的东西，特别感叹韩国对于传统文化的一种尊敬和保护。我们中国其实不乏这些传统工艺，但是很少有相应的保护和珍重，这个似乎是我们需要学习的一点。顺便提一下，这家艺术馆的接待人员特别友好，特别亲切，我们在拓印的时候，认真和细致的教我们拓印韩国三种传统的拓印动物：老虎，公鸡和狗。拓印出的作品可以免费保留，拓印的纸质上乘，洁白如雪，纸上还有纹理，并有艺术馆的签章，看着很有艺术风味，自己拓印一张自留送人皆可，可算相当有意义的礼物。出了传统纸艺馆，隔壁是全州传统工艺馆，这个馆的门口走廊的正上方悬挂着很多色彩缤纷的纸伞，错落有致

，站在门口拍照很有东方情调。馆里陈列着各种全州的传统工艺品，和我一起同行的世洵同学完全是一个移动的百科全书，为我讲解了瓷器的起源和发展，特别是瓷器的烧制工艺，我们看到韩国瓷器工艺人的精湛技艺，每一款瓷器都有签章，都有特别之处，有青瓷，有白瓷，有陶器，也有手工打制的铜器。最喜欢的是一款韩式的杯子旁边配的一个小杯子带一个小小的鱼尾，刚好可以卡到那个大的杯子上，美丽的同时也很实用，感受到韩国手工艺人的创作的细腻心思。馆里另外陈列着各种纸质工艺品，布艺和手工丝质围巾。不管是哪种手工艺品，感觉在这里都得到了充分的尊重和爱护，民族的文化在这种细节中一点一滴的呈现出来，让人很是震撼。出了传统工艺品馆，我们又去了全州有名的PNB巧克力饼店，这家店是韩国境内的网红美食店，里面有各种试吃的美味糕点，而且他们也不会反对大家多多品尝，里面的食品最常见的就是巧克力派，草莓派，姜饼，栗羊羹。喜欢甜食的朋友们可不要错过这家店铺哦，另外提一句还有一家店是全州传统巧克力派老店，离他家很近，一个拐弯就到，大家完全可以两种店的派都带回家给家人朋友们分享，非常美味。本来想去韩屋村有名的韩纸博物馆转转，时间仓促，没能成行。我们途经殿洞圣堂，宏伟的教堂建筑让人顿生好感，无奈天色已经很晚，教堂不再接待外宾，所以大家只有在教堂外拍照打卡。这里真的是拍照一流的景致。走走停停，短暂的全州韩屋村文化体验就很快结束了，但是留下的是特别美好和深刻的记忆(英文专业博士班康宇英)。

Жонжу их сургууль 'хайр хуваалцах' тэтгэлэг гардуулах ёслол

Жонжу их сургуулийн гадаад оюутны үйлчилгээний төв нь энэ сарын 7-ны өдөр Вьетнам, Монгол, Индонез, Узбекистан улсын 8 оюутанд 'Хайр хуваалцах тэтгэлэг'-ийг гардуулав. Энэхүү тэтгэлгийг 'Христийн шашин ба соёл'-ын хичээлийг хариуцан ажилладаг 5 багш хамтран нийт 4,290.000воныг цуглуулсан бөгөөд Солонгос улсад суралцаж буй олон улсын 8 оюутанд тус бүр 500,000

воны тэтгэлгийн гардуулан өглөө. Корона 19-ийн улмаас гадаад улсын оюутнуудын соёлын солилцооны хөтөлбөрүүд багасч, уулзалт, үйл ажиллагаа хязгаарлагдмал болсон тул Солонгос амьдралд зохицох, хэл сурах боломж багассан. Цагийн ажлаас гарах зэрэг эдийн засгийн хүндрэлүүд ч нэмэгдсэн. Корона 19-өөс болоод гадаад оюутнуудад олон бэрхшээл тулгарсан. Надад ч

мөн адил олон төрлийн бэрхшээл тулгарсан боловч хамгийн том бэрхшээл нь энэ улиралын төлбөр төлөх явдал байсан. Хайр хуваалцах тэтгэлгийг авах боломж олгосонд үнэхээр их баярлаж байна. Маш их талархаж байна" гэж тэтгэлэгт хамрагдсан оюутан Сарангуа талархлаа илэрхийлжээ



Trao tặng học bổng chia sẻ yêu thương đến du học sinh, giáo viên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Trung tâm hỗ trợ du học sinh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đã trao tặng "Học bổng chia sẻ yêu thương" đến 8 du học sinh đến từ Uzbekistan, Indonesia, Mông Cổ, Việt Nam vào ngày 7

tháng 5. Học bổng lần này đã quyên góp được tổng số tiền là 4.290.000won, với sự chuẩn bị bởi 5 giáo viên phụ trách khoa Cơ Đốc Giáo và Văn hóa, giáo sư Yang Sung Eun (mục sư đảm nhiệm nhà thờ Dream) cùng với 28 giáo viên khác và giáo sư Pyong Yong Woo được tuyển dụng vào năm 2018 (khoa Ngôn ngữ và Văn hóa Nhật Bản). Những giáo viên tham gia trong đợt quyên góp này hiểu và cảm nhận được những khó khăn mà du học sinh đến Hàn Quốc phải trải qua do dịch virus Corona gây ra nên đã quyết định trao tặng mỗi suất học bổng

trị giá 500.000won đến 8 du học sinh với tổng số tiền là 4.000.000won. Đặc biệt các chương trình giao lưu văn hóa dành cho du học sinh bị giảm thiểu, các hoạt động tập thể cũng bị giới hạn, cơ hội học tập ngôn ngữ và thích ứng với cuộc sống sinh hoạt tại Hàn Quốc cũng bị giảm đáng kể. Công việc làm thêm bị gián đoạn tăng thêm khó khăn về mặt kinh tế. Giáo sư Kim Jang Sun (khoa Tán dương và Kính bái) đã phát biểu "Các đồng nghiệp đã chuẩn bị học bổng với ý nghĩa hiểu được sự khó khăn mà du học sinh phải nhận do virus Corona 19" và "Đúng không phải là số tiền lớn

nhưng với mong muốn bằng học bổng du học sinh có thể phát triển và trưởng thành, chuyên tâm vào việc học bằng khả năng nhân tài". Học sinh nhận học bổng Vũ Thị Quyên (Việt Nam, năm 2, khoa Quản trị Du lịch) đã phát biểu cảm nhận "Do virus Corona 19 nên đã phải trải qua khó khăn nhưng cũng đã nhận được nhiều sự quan tâm và giúp đỡ của các doanh nghiệp. Vivay, bằng tấm lòng cảm ơn các doanh nghiệp đã giúp đỡ du học sinh trong những lúc khó khăn".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지침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제2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제3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제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쉬니다

WHY?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열이 나타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열이 나타나 기침, 가래, 근육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며 3~4일간 쉬니다.
2. 증상이 있으면 주변 사람과 만나는 것을 최대한 삼가고,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합니다. 특히 고령자·기저질환자와의 대화·식사 등 접촉을 자제합니다.
3. 휴식 후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복귀하고, 휴식 중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4. 병원 또는 약국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꼭 마스크를 씩니다.
5. 기업, 사업주 등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 출근하지 않거나, 또는 집으로 돌아가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2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을 둡니다

WHY?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를 2m 이상 두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습니다.
2.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2m의 거리, 아무리 좁아도 1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3.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 경우 2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합니다.
5. 만나는 사람과 악수 혹은 포옹을 하지 않습니다.

제3수칙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 할 때 옷소매로 가립니다

WHY?



오염된 손을 거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기침·에tern을 지겨 침방울을 통한 전파도 최소화합니다.

1.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합니다.
2.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3. 개인·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와 비누를 마련하거나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
4.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수수건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을 가립니다.
5. 발열, 기침, 가래, 근육통,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안 좋다고 생각되면 다른 이들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제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 합니다

WHY?



환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낮출 수 있고,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 묻을 수 있는 곳을 소독하면 손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상시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환기합니다. 환기를 할 때는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놓습니다.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 환기는 필요합니다.
2.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은 주 1회 이상 소독 합니다.
3. 공공장소 등 다수가 오가는 공간은 손이 자주 닿는 곳(승강기 버튼, 출입문,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과 공용 물건(카드 등)을 매일 소독 합니다.
4. 소독을 할 때는 소독제(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에 따라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준수(용량과 용법 등)하여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합니다

WHY?



코로나 19는 나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1.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는 등 마음으로 함께 할 기회를 만듭니다.
2.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연대를 생각하고, 코로나19 환자, 격리자 등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반대합니다.
3.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음을 나누고, 실천합니다.
4.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 공유하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

제1수칙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제2수칙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제3수칙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제4수칙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제5수칙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제3수칙 방역관리자는 방역지침을 만들고 모두가 준수하도록 합니다

1. 방역관리자는 우리 공동체의 밀폐도, 밀집도, 그 밖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해 방역지침을 만듭니다.
2. 방역지침은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 중 적합한 지침을 참고하고, 아플 때 집에서 3~4일 쉬기, 손씻기, 소독과 환기, 사람간의 거리두기, 마음은 가까이 등 개인방역 5대 수칙과 고위험군, 환경소독, 마스크, 건강생활 보조수칙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3. 공동체의 특성상 많은 사람이 만나거나 밀폐된 환경인 경우 자주 손씻기, 1~2미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또는 안면보호대 설치, 유증상자 확인, 자주 환기 등을 강화하여 방역지침을 작성합니다.
4. 방역관리자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각자가 이를 실천하도록 도와 방역지침이 지켜 질 수 있도록 합니다.
5. 방역관리자가 없는 가운데 집단의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구성원이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대신하여 방역지침의 실천을 돕습니다.
6. 방역관리자는 방역지침의 실천이 가능하도록 구성원의 역할 배정과 시설 환경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공동체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개인방역 보조수칙

<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지침 : 마스크 착용 >

① 마스크 사용 일반 원칙

- 마스크 착용보다 손씻기, 사람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침방울 배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사람들과 거리 유지가 가능한 야외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과 돌보는 가족, 코로나19 감염 시 치사를 위험도가 높은 취약계층과 돌봄 인력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② 마스크를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합니다

-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되도록 착용합니다.
-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나 손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곳이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세탁방법으로 자주 세탁해 주세요.
-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얹으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③ 다음의 경우는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KF 80 이상)

-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 94 이상 권고)
 - 의료기관, 약국, 요양원, 노인 및 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 많은 사람을 접촉하여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 예) 판매원, 음식점 종사자, (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 *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 ※ 그 외 마스크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스크사용지침을 참조하세요.